▪ 교회소식 ▪

1. 교회연합주일 :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임을 기억하는 교회연합주일입니다.
2. 청파성서학당 : 오늘 오후 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3. 가을나들이 신청 : 10월 14일에 있는 전교인나들이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4.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2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 수요저녁성경공부 : 9월 12일(수) 저녁 7:30부터 수요저녁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김재흥 목사가 '사랑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아픈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신 31:9~13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인걸	한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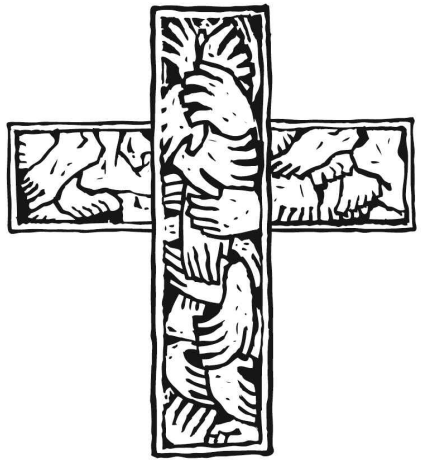
9월				
	1부 영접위원	김종락	헌금위원	박영신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송형운 이용석 류형민 하미림 최승주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이혜령		

오늘 식당 봉사	박미영 이은주 주은경 서안나 국지연 이성범 박범희 박기영		
다음주식당봉사	최현옥 김신실 안상숙 공재랑 허희라 남윤경 임주빈 이주경		
오늘설거지봉사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남명진

2018-36 9월 9일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2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창조의 하나님, 맑은 대기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한 땅, 공허한 땅, 어둠이 깊은 땅에 빛을 처음 만드신 창조의 첫날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깃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발견합니다. 창조의 첫날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밝히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관서지방을 강타한 태풍과 홋카이도를 흔든 지진으로 이웃 나라 일본의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시편46:1-2 ····· 인도자

▲ 교 독 문 ····· 54. 시편 126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신진식 목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300. 내 맘이 낙심되며 ····· 다 함께

▲ 성경봉독 ····· 수 1:1-9 ····· I. 인도자 II. 이용석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음성 II. 기쁘게 찬양하라 ····· 마중물 찬양대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정자 구명자 구재원 국지연 권미정 권선원 김광일 이부용 김남종 오복순
김미숙 김병대 김성순 김영순 김예준 김윤수 박상호 김정길 최숙화 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순정 김지현 김지호 전혜리 김진혁 신다현 김태정 김혜라
김홍수 문복순 박규석 박경선 박기영 박준민 최광희 배삼순 백묘현 백성래
서수진 서해나 손숙경 손이주 송남필 송정근 이소선 심상숙 안미숙 안성호
김희숙 오미숙 원용일 최현선 유경주 윤영미 이순이 이왕준 송상경 이용현
이유선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행진 임고은 임광호 임당재 임선자 임찬양
임형욱 장기환 장병준 박소현 전성호 전아영 전찬익 이은자 정두리 정재기
정종삼 조경자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최 숙 최영민 이상미 최욱진 최은미
최 현 홍윤선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구성실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반야 김성수 김예준 김와니 권윤경 김용길
최영혜 김인하 김정근 김지은 김지현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문복순 박다니엘
박연주 박지윤 박진주 박창운 허정윤 박해숙 변종복 서원금 오민용 유지은
이건호 김보민 이광재 이상도 이유일 김미희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자애
이정우 장윤지 임채진 이영희 장현희 정재은 정학성 김현숙 정현숙 차은호
채일석 한선희 무명2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문홍일 박한얼

녹색꿈헌금

권미숙 김영옥 임은영 정효진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산에 가서 시를 읽다

-이성선

시집을 사 들고 산으로 간다
구름 아래로 간다

배낭에 넣고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은 뛴다

오솔길에 들어서 발은 시 쓰듯 간다
나뭇잎을 밟고 샘물을 밟고 바람의 말을 밟는다

줄기 하얀 자작나무
아래 시집을 편다
내 눈이 읽기 전에 나무가 먼저 읽게 한다
바위틈에서 나온 다람쥐가 읽게 한다

날아가는 새가 읽고 나서 내가 읽는다
싸리꽃이 읽고 나서 내가 읽는다

그들의 눈빛이 밟고 간 시
그들의 깨끗한 발자국이 남은 시
물방울이 된 시를

놀빛이 밟고 나서 내가 읽는다

말 씀 ·····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 김기석 목사

거룩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요단강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요단강 너머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에 용기를 내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안일함에 길든 채 옛 삶의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소비하는 인간

-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레위기20:2

몰록 또는 몰렉이라는 신을 아는지. 다른 종족에게는 모두 수호신이 있는데, 자기네 종족만 신이 없는 것을 슬퍼하던 셈 족속이 그 신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신이 제물을 요구했고, 이윽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그 신을 고안해 낸 최후의 한 사람까지 잡아먹었다고 한다. 그 포악한 신의 이름이 몰록이다.

탐욕적으로 포악한 이 신 몰록은 거대한 기계 문명의 다른 이름처럼 들린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생겨난 기계 문명이 점차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왜소화시키다 못해 무(無)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물신(物神), 곧 이 시대의 우상이 되었다.

이 시대의 '물신'도 몰록처럼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손을 벌린다. 우상이 베푼 거짓 구원에 세뇌당한 우리는 거룩한 '인간'의 이름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값싼 풍요와 말초적인 쾌락을 제공받고 있다. '인간'은 사라지고 물욕의 소비자만 남았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소비자'다. 인간에 대한 많은 정의들, 이를테면 만물의 영장, 놀이하는 인간, 사회적 동물, 희망하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등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모르긴 해도 현대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소비하는 인간'일 것이다. 우리 시대에 새로 등장한 난폭한 몰록, 동시에 달콤한 물신이 제공하는 행복과 구원의 복음이 바로 '소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소비하느냐에 따라, 누가 더 물신이 제공하는 상품들의 소비자 노릇을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백화점 쇼핑백의 개수, 이른바 명품 가방의 개수가 종종 이 시대를 사는 '소비하는 인간'의 행복의 바로미터가 되곤 한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라는 우스갯소리는 이미 구닥다리가 되었고, '소비하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소비하느냐'가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TV와 각종 매체의 광고는 이 시대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서 '소비하는 인간'의 소비욕을 경쟁적으로 부추긴다. 이걸 먹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이걸 입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시대의 낙오자가 됩니다. 낙오자는 불행합니다. 이걸 사용하세요. 이걸 두르세요…. 소비는 강요된다. 소비가 제공하는 향락에 마비된 '소비하는 인간'은 의식이 잠들어 있어서 풍요와 행복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실상은 거짓 풍요이고, 사이비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

기계 문명을 인간화시키는 일, 빼앗긴 '인간'의 이름을 몰록으로부터 되찾고, 신성의 보유자로서 거룩한 생명을 회복하는 일, 기계 문명을 본래의 목적대로 인간을 위한 도구로 남게 하는 일, 그리하여 소비자로서의 인간을 창조자이자 생산자로 복귀시키는 일, 그것만이 예고된 패망으로부터 이 시대를 건지는 처방일 수 있다고 에리히 프롬은 주장했다.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고 있을 때의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다. 창조하는 인간이냐, 소비하는 인간이냐는 결국 우리가 이 문명의 주인이냐, 노예이냐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가짜 행복을 제공하는 알사탕의 달콤함에서 해방되려는 결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 이승우,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복있는사람) 중에서